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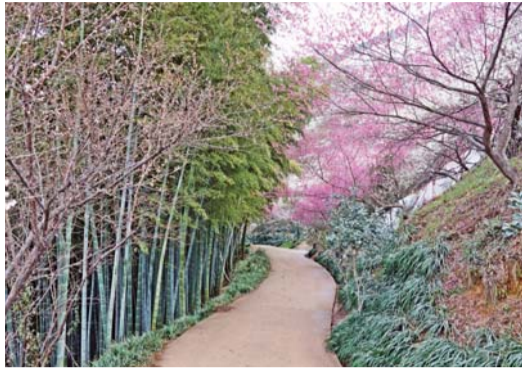
# 광양발효밥상·남도바닷길 미식로드...광양 '미식관광' 뜬다

스토리·맛 담긴 콘텐츠 개발 시범운영 남도의 부역 등 8개 테마 16개 코스 명인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등 다채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상품도 개발

광양시가 생태미식 자원인 남도바닷길 콘셉트를 담은 '광양발효밥상'과 '남도바닷길 미식로드'를 개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팝파티아로부터 대한민국의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인 '남도바닷길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상품 운영'에 관한 중간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도바닷길 미식투어는 남도의 부역, 남도풍경다이닝, 남도바닷길 미식로드 등 8개 테마로 6권역(광양·순천·보성) 지자체별 4개, 지역 연계 4개 등



광양시가 남도바닷길 콘셉트를 담은 미식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왼쪽부터 매화마을, 기정역, 섬진강재첩.

총 16개 코스로 기획됐다.

각 코스는 모듈화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티투어, 당일, 1박2일 등 다양한 테마와 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미식관광 콘텐츠는 이달 중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을 대상으로 남도바닷길 권역 지역 연계(1박2일)와 지자체별 단독 상품 운영(1일)을 각각 1회씩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광양발효밥상', '광양풍경다이닝', '광양바닷길미식주', '광양맛보기 바비큐트랙', '광양미식 스토리북 투어' 5개 프로그램 중에서 여름철에



〈광양시 제공〉

적합한 '광양발효밥상'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광양발효밥상'은 숲해설사와 함께 하는 백운산 트래킹, 향토발효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광양 기정역 체험, 광양5일장 및 로컬푸드 체험 등 광양의 자연과 미식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인문·체

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남도바닷길 미식로드 지역 연계 코스로는 광양의 '매실 한상', 보성의 '차', 순천의 '갯벌 식재료' 등 남도바닷길 식재료의 다양성과 다채로운 음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화엽 광양시 관광과장은 "미식관광 빅데이터와 미식 인플루언서, 미식 체험공간 자원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생한 스토리와 맛이 담긴 경쟁력 있는 미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기획된 프로그램들을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와 타깃으로 재구성해 밀레니얼, 가족여행객, 시니어 등 폭넓은 여행객을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코로나19 이후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가 늘고 있는 만큼 건강하고 독특한 남도의 미식(美食)과 접목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광양이 여행의 목적지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멜론, 커피전문점서 스무디로 만난다

전국 탐앤탐스 매장서 출시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전국 매장에서 곡성멜론을 만난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와 손잡고 '곡성멜론 스무디'를 전국 매장에 내놨다.

'곡성멜론 스무디'는 곡성멜론만의 독특하고 싱그러움 향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으며 우유를 조합해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낸다.

친환경 그린 캠페인의 하나로 레블루션 음료로 출시돼 주문 시 일회용 컵 대신 에코 캔들 드리킹잔(손잡이가 달린 유리병)에 제공된다. 드리킹잔은 반납할 필요 없다.

곡성멜론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올해 초부

터 곡성멜론을 활용한 여름메뉴 신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접촉했다.

그 결과 자체적인 연구개발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탐앤탐스와 협업을 선택했다.

곡성멜론사업단과 탐앤탐스는 메뉴 개발 과정에서 긴밀히 협업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기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판매 중인 제품군 중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 곡성멜론 원물을 활용한 스무디, 라떼, 주스, 에이프로 후보군을 추렸다. 그 중 소비자 평가단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곡성멜론 스무디'를 최종 메뉴로 결정했다.

곡성멜론사업단 관계자는 "곡성멜론 스무디가 올 여름을 주도할 메뉴로 탐앤탐스에서 출시하게



곡성멜론 스무디. <탐앤탐스 제공>

되어 기대가 크다"며 "곡성멜론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농가 소득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전국 멜론 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차타고 멜론마를' 브랜드로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국무총리상, 2015년 대통령상, 2016년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고흥군 '순천대 그랜드 ICT연구센터' 유치

최장 8년간 사업비 213억원 투입 스마트농업교육 중심지로 육성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순천대학교 그랜드 ICT연구센터'가 들어선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순천대 ICT연구센터는 순천대가 주관하고 고흥군이 공동 참여한다.

ICT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농업 분야 지능화 요구에 부응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농업 선도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사업으로 지역 산업체 재직자 대상 석사 학위과정 과정(연간 25명)을 운영하며 사업참여 산업체 재직자에게는 90%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지역 산업체, 재직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지능형 스마트농업 기술을 공동 개발

하고, 스마트농업 지능화 유동 선도 기술 연구, 스마트 농업 지능화 핵심기반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한다.

올해부터 최장 8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 213억원 규모다. 2022년부터는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연구센터와 스마트농업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을 체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습득, 우수인재의 지역 내 취업으로 연계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이어 그랜드 ICT연구센터 유치를 스마트농업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은 2021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반조성과 핵심시설 설치에 집중 중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구례군, 임대주택 100가구 공급... 12월 입주

구례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조감도> 국민임대주택은 구례읍 봉서리 6430㎡의 대지에 지상 9층 2개동으로 건립된다.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복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용면적 22㎡형(56가구), 26㎡형(12가구), 33㎡형(28가구), 48㎡형(4가구) 등 4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월 임대료는 주변 임대주택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임대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구성원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 이하, 총자산가



액 2억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등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구례군 종합민원관에서 입주 신청을 받는다. 입주는 오는 12월 예정이 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마래2터널 8~19일 통행 금지 낙석 위험 제거 등 보수공사

여수시는 마래2터널 내 낙석위험 제거 등 보수공사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터널 통행을 일시 통제한다.

이번 보수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 기간 국도17호선-만흥IC-영진자동차화원-만성리해수욕장 구간으로 우회해야 한다.

등록문화재 제116호인 마래2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건설됐다. 2016년 말 낙석사고가 발생해 정밀안전진단과 긴급보수가 이뤄졌다.

여수시는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매년 낙석위험 제거를 위해 특별 점검과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고흥 유자차 11t 체코 수출...올해 80t 예상

고흥군은 최근 두원농업의 유자차 11t(3400만원)을 체코에 수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체코 수출길에 오른 고흥 유자차는 30여t(1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체코에 수출한 27t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올해 하반기까지 80t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수출 촉진단을 구성해 체코를 비롯한 유럽에서 판촉 행사를 벌였다.

신선식 두원농업 조합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유자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베트남 등 동남아에 이어 체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유자는 비타민 함량이 풍부해 면역 효과가 뛰어나다"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유럽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